

#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태국의 미디어와 종교

2022년 01호

#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2년 01호

구분(장르)	제목	Key Word
심층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태국의 미디어와 종교</li><li>▶ 태국 내 공인 종교와 그 분포 / 불교와 관련된 영화, 방송사 및 미디어 콘텐츠 /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영화, 방송사 및 미디어 콘텐츠 / 정리 및 시사점</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태국의 종교 분포</li><li>▶ 태국 불교 콘텐츠</li><li>▶ 태국 이슬람 콘텐츠</li><li>▶ 태국 민간신앙 콘텐츠</li></ul>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태국 마케터

배포 | 2022.10.11



## 심층 이슈

### 태국의 미디어와 종교

#### 작성 순서

1. 태국 내 공인 종교와 그 분포
2. 불교와 관련된 영화, 방송사 및 미디어 콘텐츠
3. 그 외 종교와 관련된 영화, 방송사 및 미디어 콘텐츠
4. 정리 및 시사점

누구나 콘텐츠로 일상을 풍요롭게

KOCCA

## 1 태국 내 공인 종교와 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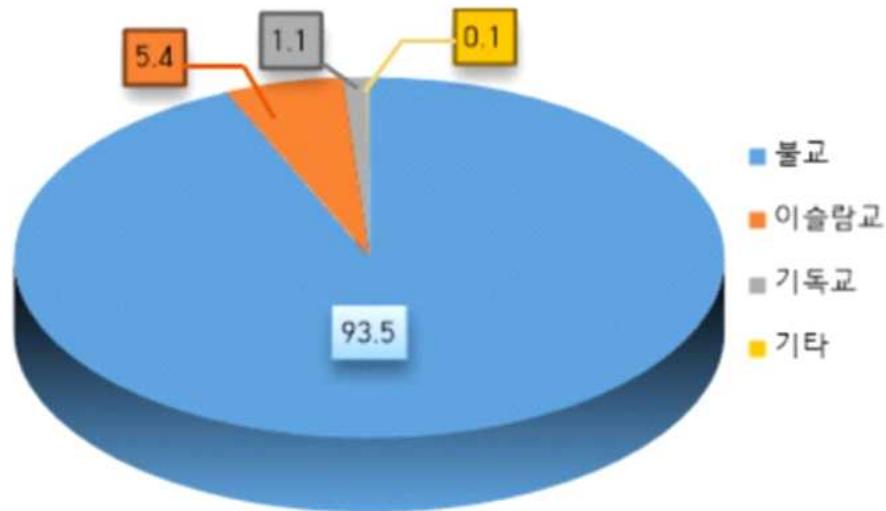


### ✔ 태국 내 공인 종교

- 태국은 932년 제정된 최초 헌법에서부터 2017년 신헌법에 이르기까지 20번의 개헌 동안 계속해서 국민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따로 국교를 정하지 않았음. 단, 국왕은 일반 국민과 별개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반드시 불교도이어야 함을 헌법에 명시함
- 비록 불교는 태국의 국교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2017년 신헌법 제 67조에서 태국에서 불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교 교육과 포교를 촉진·지원해야 하며, 태국 내 불교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다른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명확히 함
- 태국은 문화부 산하의 종교국(Department of Religious Affairs)과 총리실 산하의 불교청(National Office of Buddhism)이라는 정부 행정기관을 통해 종교를 관리감독 및 지원하고 있음. 종교국은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힌두교, 시크교 총 5개의 종교를 관리, 지원함. 불교청은 태국 승단의 승가최고위원회 지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사원 및 승려 관리, 불교와 관련된 사안을 분리해 관리함. 즉, 태국 정부가 공인하는 종교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5개 종교뿐임
- 현 문화부 산하의 종교국은 1889년 라마 5세, 쥘라롱껀 대왕 통치 시기(재위: 1886~1910년)에 행정제도 개편으로 생겨남. 한편, 불교청은 2002년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임기: 2001~2006년)가 종교국으로부터 불교 관련 업무를 분리해 신설함

☑ 태국 내 종교 분포

- 2018년 태국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태국 내 종교 분포는 불교 93.5%, 이슬람 5.4%, 기독교 (가톨릭과 개신교) 1.1% 및 기타 0.1%로 나타남. 태국인의 대부분은 불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위인 이슬람교, 기독교와도 현저한 신도 수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



[그림 1] 태국 내 종교 분포<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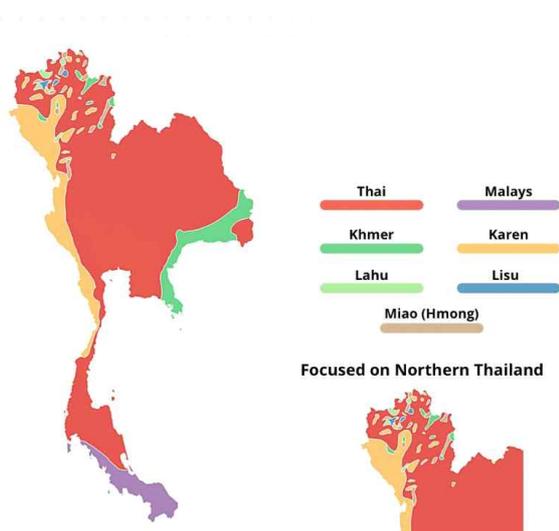
- 종교의 분포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불교는 동북부, 중부, 북부, 방콕, 남부 순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슬람은 남부, 방콕, 중부 순으로, 그리고 기독교는 북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이는 지역별 거주민의 혈통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음

[표 1] 태국의 지역별 종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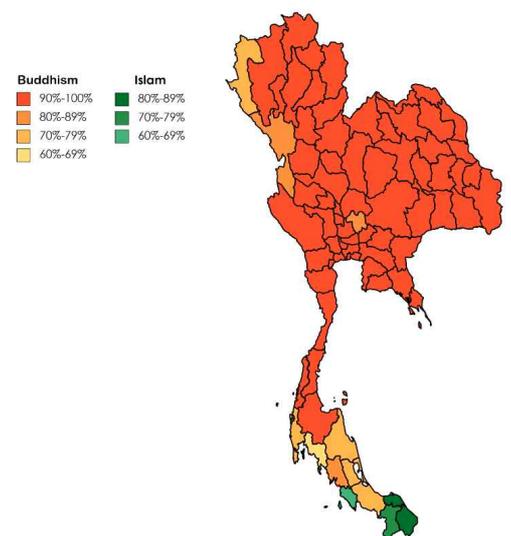
지역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타	비고
방콕	93.7	5.0	1.3	a	*0.1%보다 적은 숫자는 a로 표기함 *기타 종교는 브라만-힌두교, 시크교 및 그 외 종교 포함 *무교는 0.1%보다 낮게 집계되어 표기하지 않음
중부	97.0	2.5	0.5	0.1	
북부	96.9	0.1	3.0	a	
동북부	98.9	a	1.0	a	
남부	70.9	28.9	0.2	a	

1) 출처: The 2018 Survey on Conditions of Society, Culture and Mental Health(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 태국 남부에서 말레이시아와 인접해 있는 뵈따니, 알라, 나라티왓, 싸똌에 태국 말레이계 무슬림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 14 세기에 이슬람 왕국인 뵈따니 왕국을 세우고 술탄 자치 전통을 고수해 옴. 도심 외곽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말레이시아 방언인 야위(Jawi)어를 사용하는 등 종교, 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뵈따니 왕조는 태국 중부 타이족 중심 왕조의 속국의 형태였다가, 18 세기 랏따나꼬싌 왕조의 남부 정벌을 시작으로 점차 태국 중부 타이 왕조에 흡수됨. 특히, 라마 5 세 때인 1902년 중앙집권적 행정제도 개혁에 따라 중앙에서 과거 뵈따니 왕조 지역으로 관료를 파견하기 시작함. 1940년대에는 태국 민족주의에 의한 강력한 동화정책이 실시되며, 이슬람식 종교 행위를 불법으로 규제해 반발이 심해짐. 1980년대부터 이(異)문화 포용정책이 시작됐으나 여전히 남부 무슬림의 분리 독립 주장 및 목적이 불분명한 유혈 테러가 간헐적으로 반복 발생함
- 태국 북부의 고산족은 고산 지대 소수 종족으로 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이족과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 카렌족(Kare), 몬족(Mon), 야오족(Yao), 리수족(Lisu), 라후족(Lahu) 등 대표 소수 종족 약 10 개, 전체 80 만 명 여로 집계됨. 그러나 미등록 인구로 인해 정확한 인구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태국-미얀마 국경지대 카렌족 난민은 국제구호, 선교활동의 대상이 됨. 태국 내 카렌족은 약 40 만 명으로 집계되며, 태국 고산족 전체의 약 49%를 차지함. 언어, 교통 등의 문제로 태국 중앙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면서 이에 따라 서구식 선교와 개화의 대상이 됨에 따라 많은 이가 기독교로 개종함



[그림 2] 태국 내 지역별 종족 분포<sup>2)</sup>



[그림 3] 태국 내 지역별 종교 분포<sup>3)</sup>

❖ 태국 내 각 종교의 유입과 영향

- 현재 태국인의 대다수가 신봉하는 상좌부 불교는 약 3 세기 경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불교의 포교를 위해 9 개의 루트로 각기 승려들을 보낸 것을 계기로 유입되었음. 소나(Sona)와 윗따라(Uttara) 승려를 대표로 한 승려단이 황금의 땅이라는 의미의 '수완나품', 즉, 현재 대륙부 동남아시아 지역에 상좌부 불교를 전하였고, 이 시기에 태국에도 상좌부 불교가 전해짐
- 그러나 태국인이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대승불교를 신봉하고 있었다는 설이 있음. 타이족의 이동 경로 중 가장 유력한 설은 중국 남부 운남성 지역으로부터 차츰 이동해 현재의 태국에 정착하였다는 설로, 이때 태국인들이 중국을 통해 대승불교를 먼저 받아들였다는 것. 따라서 태국인이 현재의 동남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시기에는 대승불교가 대세를 이루었고, 크메르 문명을 수용하며, 브라만교와 산스크리트어를 받아들이면서는 상좌부 불교를 함께 수용해 약 1200 년경까지도 대승불교와 상좌부 불교가 공존하였다고 함
- 태국의 첫 번째 통일왕조인 수코타이 왕조(1238~1438 년)에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스리랑카에서 유학한 승려를 통해 국가의 법과 계율을 정비함. 이즈음 태국 글자가 고안되면서 불교 중흥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짐. 수코타이 시대는 전형적인 종교 국가의 형태였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국왕의 승려 위계 하사 풍습, 국왕의 가사 봉헌 의식, 왕가의 남성과 일반인 남성들의 출가 풍습 등이 이 시기에 자리 잡음
- 태국에 이슬람교가 언제부터 유입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3 세기 수코타이 왕조 시기부터 이슬람교를 믿는 페르시아인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수코타이 시대의 도자기가 인도네시아, 이란 및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무슬림 상인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유추됨
- 아유타야 왕조 프라이록까낫 왕(재위: 1448~1491 년) 시기 이후 무슬림 상인들이 옛 재무부의 관료직을 맡았던 사료들이 발견됨. 특히, 이들이 페르시아어, 아랍어, 말라이어, 자바어, 참족어 등 외래어에 능통했다는 기록이 있음. 태국에 정착한 무슬림 중 일부는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인도를 거쳐 유입되었으며, 일부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태국 남부로 유입되었음. 페르시아, 아랍, 인도 등지에서 온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재는 방콕과 그 인근, 북부와 동북부, 남부에 거주함
- 태국의 브라만 힌두교는 기원전 3 세기 경 소나 승려와 윗따라 승려가 불교의 포교를 위해 현재 대륙부 동남아시아 일대로 왔을 때 함께 전해진 것으로 여겨짐. 태국에서 브라만교가 가장

2) 출처: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m50kw8/ethnicities\\_of\\_thailand/](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m50kw8/ethnicities_of_thailand/)

3) 출처: [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nagqw3/map\\_of\\_religion\\_in\\_thailand\\_2010/](https://www.reddit.com/r/MapPorn/comments/nagqw3/map_of_religion_in_thailand_2010/)

번성하게 된 것은 아유타야 왕조 시기임. 아유타야의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는데, 이때 왕실의 제식에서 브라만교의 의식을 도입하였으며, 브라만교식 제식은 현 랏따나꼬신 왕조의 제식에도 남아있음

- 브라만교 사제들은 제식 이외에도 베다 문헌을 가져와 태국에 전통 의학과 약학을 전하였고, 태국 법제와 문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줌. 브라만교는 불교와 혼합되어 발전해오다가, <왕과 나>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현 랏따나꼬신 왕조의 라마 4 세, 몽꿏왕 때(재위: 1851~1868 년) 불교 개혁을 계기로 쇠퇴함
- 힌두교는 태국의 문학과 예술에 많은 영향을 줌. 힌두교 신인 브라흐마(창조의 신), 비슈누(수호의 신), 쉬바(파괴의 신)은 힌두교 사원에서 뿐 아니라 왕실과 불교 사원의 벽화와 조각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현대 태국 왕국의 수호신은 비슈누 신이며, 따라서 공문서에는 반드시 비슈누의 화신이자 이동 수단인 크룻(Garuda)을 새김.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라마야나'의 태국판 '라마끼안' 역시 비슈누 신의 이야기를 재해석한 것임
- 태국의 기독교는 크게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는데,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로, 기독교의 유입은 상업 교류와 선교사의 활동을 통해 시작되었음. 가톨릭은 아유타야 왕조 시대인 16 세기에 처음 들어왔으며, 개신교는 이보다 더 늦은 19 세기에 태국에 소개됨.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 신자는 태국 전체 인구 중 약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기독교는 태국의 근대화시기에 서구식 교육, 의료 기술, 사회 복지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2 불교와 관련된 영화, 방송사 및 미디어 콘텐츠



### 2.1. 불교와 관련된 영화

#### ✔ 태국 제작 불교 영화의 시초

-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 태국 사회에서 승려는 정신적, 문화적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태국 미디어 콘텐츠에 크고 작은 역할로 자주 등장하곤 하지만, 과거에는 승려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는 많지 않았음. 영화 <루앙 따>는 승려 자체를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나 예술적 가치로서나 모두 인정받은 최초의 영화로 여겨짐
- <루앙 따>는 승려가 한 여인이 키울 수 없게 된 남자아이를 사원에서 돌보며 키우는 사이 남자아이가 성장하며 겪는 이야기를 다룸. 태국 전통 사회에서 사원과 승려가 가지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보여줌

4) 출처: [https://thaibunternng.fandom.com/th/wiki/หลวงตา\\_\(2523\)](https://thaibunternng.fandom.com/th/wiki/หลวงตา_(2523)), <https://www.fapot.or.th/main/archive/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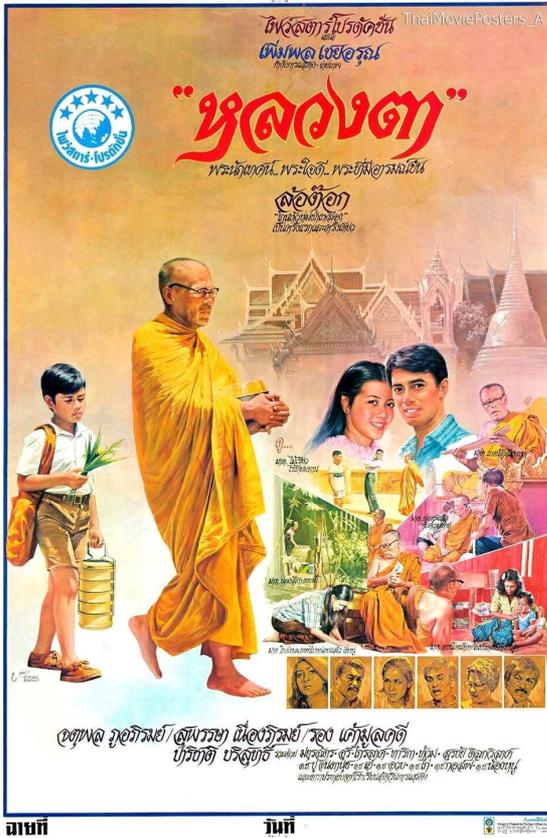


그림 4 1980년, 승려를 주인공으로 한 태국 제작 영화 <루앙 따>4)

- 1980년에 제작·상영된 이 영화는 첫 상영 당시 650만 바트의 수익을 올렸음. 동년 제2회 국립 태국영화협회에서 창의성 높은 영화로 인정받아 제작사 파이브스타프로덕션(Five Star Production)이 상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인 1981년에 태국의 'Surasawadee Royal Award'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음. 또한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받아 황금곰 상 후보에 오름으로써 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작품임
- 흥행에 힘입어 이후 연작으로 영화 <루앙 따 2>(1982), <루앙 따 3>(1991)가 제작되었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화 <루앙 피 텅>(2005), <루앙 피 텅 2>(2008), <루앙 피 텅 3>(2010), <루앙 피 썸 4G>(2016)로 리메이크 되었으며, TV 시리즈(2014~현재)로도 제작됨



|그림 5|  
2005~2010년 리메이크 된 영화  
〈루앙 피 텅〉 시리즈<sup>5)</sup>



|그림 6|  
2016년 리메이크 된 영화  
〈루앙 피 썸 4G〉<sup>6)</sup>



|그림 7|  
2014년부터 TV 시리즈로 리메이크 된  
〈루앙 따 마하쑤〉<sup>7)</sup>

#### ❖ 다양한 영화 장르 속 불교

- 드라마, 코믹, 로맨스, 공포, 역사 등 여러 영화 장르 속에서 승려는 때론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영험한 힘을 가진 종교적 지도자로, 가르침을 주는 위대한 스승으로, 혹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인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됨
-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는 중에도 승려와 불교는 궁극적으로 태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이 공통적 바탕으로 깔려 있음
- 불교나 승려 그 자체를 콘텐츠의 주요 내용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불교의 환생과 업보에 대한 믿음을 기본 플롯에 담은 콘텐츠들도 제작·소비됨. 불교와 승려에 관련된 이미지는 다양하게 재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함

5) 출처: <https://movie.mthai.com/movie-news/thaimovie-news/207405.html>

6) 출처: <https://movie.mthai.com/movie-news/thaimovie-news/207405.html>

7) 출처: <https://siamreplay.com/หลวงตามหาช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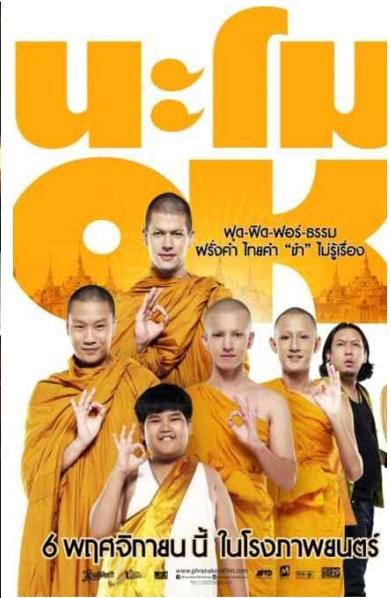
[그림 8]

2010년 액션 영화 <낙 브룩>에서 승려는 범죄자의 협박에 굴복해 그들을 출가시켜 주지만,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노력하는 인물로 묘사됨



[그림 9]

2011년 미스터리 시대극 영화 <우몽 파 므앙>에서 승려는 살인사건 해결의 열쇠를 천 인물로 묘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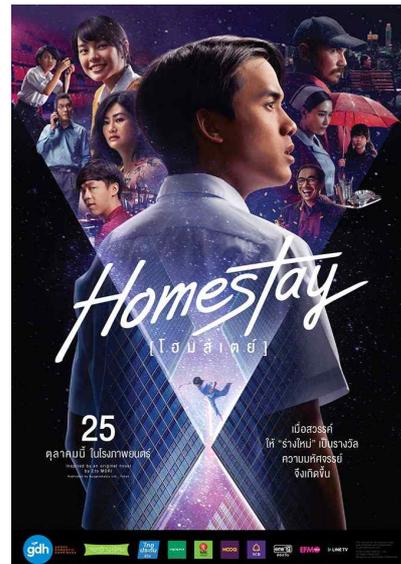
[그림 10]

2014년 코믹 영화 <나모 오케이>에선 기억을 잃은 서양인 승려가 순진하고 코믹하게 묘사됨



[그림 11]

2013년, 코믹· 공포 영화 <피막..프라카농>은 국내에 <피막>으로 소개됐으며, 영혼과 귀신, 성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함



[그림 12]

2018년 미스터리 판타지 영화 <홈스테이>는 국내에 <신과 나: 100일간의 거래>로 소개됐으며, 업보와 윤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함

8) 그림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นาคปรุก\\_\(ภาพยนตร์\)](https://th.wikipedia.org/wiki/นาคปรุก_(ภาพยนตร์))

9) 그림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อุโมงค์ผาเมือง>

10) 그림 출처: <https://www.siamzone.com/movie/m/7376>

11) 그림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อุโมงค์ผาเมือง>

12) 그림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โฮมสเตย์\\_%28ภาพยนตร์%29](https://th.wikipedia.org/wiki/โฮมสเตย์_%28ภาพยนตร์%29)

❖ 불교 관련 방송사와 미디어 콘텐츠

- 태국의 대표적인 불교 방송사는 DMC, WBTV, MCU 등이 있음. 이들 채널은 승려의 설법 영상, 종교 뉴스, 명상 라이브, 종교적 깨달음을 일깨우는 드라마 다시보기 등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함. TV 채널, 라디오, 웹사이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음
- DMC는 2002년 개국했으며, 24시간 위성방송으로 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방송 콘텐츠를 송출함. 약 180여 개 국에서 시청 가능함. 위성방송 외에 라디오, 모바일, 케이블 TV,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미디어 콘텐츠를 청취·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함
- WBTV는 2004년 시리깃 왕대비(당시 왕비)의 72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개국했음. 개국식에는 당시 왕세자와 왕세자빈이었던 마하 와치라롱껀 현 국왕과 씨랏 수와디 전 왕세자빈이 참석한 바 있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중국 남부 등 총 22개국에서 시청 가능함
- MCU는 2012년 개국한 마하니까이 종파(Maha Nikaya)의 국립 불교대학인 마하 쉐라롱껀 대학교(Maha Chulalongkorn Rajavidyalaya University)에서 운영하는 TV 채널임. 다른 채널들과 차별되는 특징은 종교적 내용 외 대학 관련 뉴스 및 문화에 대한 내용도 제공한다는 점임
- 종교 방송국 외 일반 방송국에서도 공휴일에 마련하는 국가적 주요 불교행사를 실시간 진행 상황을 라이브로 방송한 바 있음. 특히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의 집합을 꺼리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종교행사 참여를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일례로 태국은 2021년 신년맞이 기도회는 총리실 장관의 제청으로 불교청은 방콕 및 중부의 사원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형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이를 채널 7 및 NBT TV ·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함
- 승가최고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신년맞이 기도회를 TV와 기타 매체(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시청한 사람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집계됨
  - (1) 불교청 페이스북 라이브: 52,046명
  - (2) 불교청 웹사이트: 5,990명
  - (3) 채널 7의 페이스북 라이브: 14,332,256명
  - (4) 채널 7의 TV 온라인: 10,060명
  - (5) 채널 9의 페이스북 라이브: 1,200,000명
  - (6) 채널 11의 페이스북 라이브: 520,577명
  - (7) Thai News Agency MCOT: 3,590,174명
  - (8) Morchang TV: 1,666,528명



[그림 13] 2022년 신년맞이 기도회 라이브 방송 안내 포스터<sup>13)</sup>

### 3 그 외 종교와 관련 영화, 방송사와 미디어 콘텐츠



#### 3.1. 불교 외 종교 및 신앙과 관련된 영화

##### ☑ 태국 시초의 이슬람 영화 ‘할랄 무비’

- 이슬람교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이며,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국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함. 그러나 태국 내 가장 대다수가 신봉하고 있는 불교와 이슬람교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슬람교에 대한 활발한 콘텐츠 제작은 이루어지지 못함
- 다만 최근 태국 내 종교 방송사들이 설립되며 이슬람 방송사에서 무슬림을 타깃으로 한 저예산 영화를 제작함. ‘할랄 무비(Halal Movie)’ 라고 일컫는 이들 영화는 영화 제작 전반에 있어 무슬림이 따라야 할 계율을 지켜서 만듦. 영화 제작에 계율을 적용한 것은 태국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음. 영화 외에도 드라마, 연극 등의 다양한 ‘할랄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13) 그림 출처: <https://www.thairath.co.th/lifestyle/life/2276312>



그림 14) 2015년 작 <라띠 쏿 타혹><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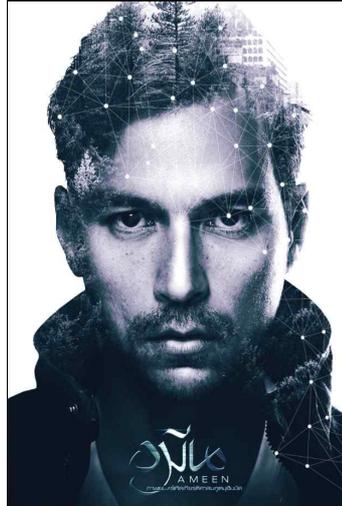


그림 15) 2015년 작 <아민><sup>15)</sup>



그림 16) 2017년 작 <아담><sup>16)</sup>

- ‘할랄 무비’는 그 제작 과정과 영화의 주요 내용에서 종교적 틀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이 다소 제한적임. 따라서 주로 무슬림으로서의 삶과 주류인 태국 불교도 사회와의 조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기부금으로만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예산에 한계가 있으며,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을 배제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음. 또한 무슬림의 삶의 원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전체 태국 인구의 93.5%에 달하는 불교도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에 소재나 내용적 한계가 분명함

#### ❖ 태국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한 영화

- 민간신앙은 별개의 종교로 분류되지 않지만, 불교도 중 많은 사람들이 정령신앙, 조상신 숭배, 무속신앙 등 다양한 민간신앙을 믿고 있음. 영험하다고 알려진 승려의 조각상을 만들어 모시거나, 집이나 건물 앞 지신 사당을 만들어 모시는 것, 메콩 강 여신 숭배와 같은 자연신을 숭배하는 것, 각 지역별 조상신을 모시는 의식(남부의 ‘노라 롱 크루’, 동북부의 ‘접신 머람’, 북부의 ‘리앙 피 반파부룻’ 등)에서 현대 태국인의 민간신앙 숭배가 드러남
- 2021년 한국과 태국의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 <랑종>(태국 제목: 랑쌩)은 태국 동북부 지방의 무당 집안의 업보로 인해 귀신에 씌어 고통 받는 여인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룸
- 이야기가 무속 신앙과 귀신, 업보라는 한국과 태국의 공통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양국 관람객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었음

14) 그림 출처: <https://www.sanook.com/movie/51725/>

15) 그림 출처: <https://m.imdb.com/title/tt4556682/mediaviewer/rm2099907584/>

16) 그림 출처: <https://www.imdb.com/title/tt8180058/>



[그림 17]  
2021년, 공포 영화 <랑송>17), 국내에 <랑송>으로 소개됐으며, 무속신앙, 업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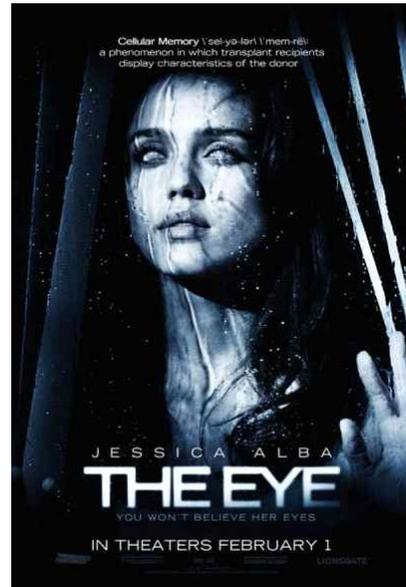


[그림 18]  
태국 문화부가 소개하는 지역 문화, 씨사켓 주의 '피파'굿18), '피파'신에게 환자의 치료를 기원하는 곳

- 귀신과 민간신앙을 토대로 한 다수의 태국 공포 영화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수출되어 소개된 바 있음. 2002년 제작된 태국 영화 <디 아이>는 2008년 할리우드에서 제시카 알바 주연의 동명 작품으로 리메이크 된 바 있으며, 2004년 제작된 태국 영화 <셔터> 역시 2008년 <셔터 인 도쿄>라는 제목으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바 있음



[그림 19]  
2002년 태국 원작 <디 아이>19)



[그림 20]  
2008년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 <디 아이>20)

17) 그림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ร่างทรง\\_%28ภาพยนตร์%29](https://th.wikipedia.org/wiki/ร่างทรง_%28ภาพยนตร์%29)

18) 그림 출처: [https://www.m-culture.go.th/sisaket/ewt\\_news.php?nid=961&filename=index](https://www.m-culture.go.th/sisaket/ewt_news.php?nid=961&filename=index)

- 국내에도 2002년 작 <디 아이>, 2004년 작 <셔터>, 2006년 작 <카르마>, 2007년 작 <삼>, <더 스크린>, 2008년 작 <카핀>, <포비아>, 2011년 작 <라다랜드>, 2017년 작 <싸반> 등 태국 민간신앙과 귀신에 대한 믿음을 소재로 한 영화가 꾸준히 소개되었음. 최근에는 공포 콘텐츠를 코믹이나 로맨스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인 2013년 작 <피막>, 2020년 작 <귀수동화> 등이 소개됨

### 3.2. 불교 외 종교 방송사와 미디어 콘텐츠

#### ❖ 이슬람 방송사와 미디어 콘텐츠

- 이슬람교 관련 방송사는 White, Yateem TV, Muslim Thailand, IBTV, TMTV 모두 5개 채널이 있음. 전체 인구의 5.4%인 무슬림 수에 비해 방송 채널이 많은 것이 특징임
- 이슬람교 방송사 역시 불교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종교 교리와 관련된 이슬람교 지도자 및 학자들의 강론, 종교사, 무슬림의 생활방식, 종교적 내용을 담은 드라마와 영화, 종교 관련 소식 등을 제공함. TV 방송 외에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라디오,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음
- 1987년 라마단 기간에 한 달 동안 한정적으로 지상파 채널 5, 9, 11에서 일정 시간을 빌려 3개 채널에서 돌아가며 라마단 달 무슬림의 의무와 활동을 알리던 경험을 토대로 1991년 무슬림만을 위한 TV 채널인 Muslim Thailand가 설립됨
- TMTV는 2004년 설립된 함사 재단(มูลนิธิซัมซะฮ)이 2011년 설립함. 함사 재단의 종교 재단으로 정식 설립 전인 1966년 이슬람 학교인 '클링 클렛' 학교(โรงเรียนคลองเคล็ด, 현재는 '쌈싸누빠탐 학교(โรงเรียนศาสนูปถัมภ์)'로 교명 변경)를 설립한 바 있음. 따라서 이 채널에서는 이슬람 경전을 읽기 위해 무슬림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아랍어 강좌 콘텐츠나 '최선전의 어린이(เด็กแนวหน้า)'와 같은 무슬림 학생 맞춤형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음
- White는 2012년 개국한 이슬람 방송사로 2~30대 무슬림 운영진을 필두로 가장 활발한 미디어 제작 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영화 콘텐츠 제작 전반에 관한 과정을 이슬람교 교리에 따라 제작하는 '할랄 무비' 방식을 최초로 도입함
- Yateem TV는 가장 최근에 설립된 무슬림 방송사로 2013년 TV 방송을 시작함. 무슬림 고아 어린이의 교육과 신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มูลนิธิศรัทธาชนเพื่อการศึกษาและเด็กกำพร้า)에서

19) 그림 출처: <http://sahamongkolfilm.com/saha-movie/eye-movie-2545/>

20) 그림 출처: <https://mgonline.com/entertainment/detail/9510000050745>

설립했음. ‘야땀’이라는 채널명은 ‘고아(孤兒)’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방송 콘텐츠 제작의 목적을 무슬림 사회의 복지와 부모를 잃은 무슬림 어린이 후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슬림 방송사와 차별화 됨

- 이 외에도 태국 각지의 도 대표 모스크나 일정 규모를 갖춘 개별 모스크들은 모스크 내에 작은 방송 부스를 만들어 라디오나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으로 지역 뉴스나 모스크 소식, 종교 가르침 등을 전파하고 있음



[그림 21] 뻗따니의 지역 모스크 내 방송 부스<sup>21)</sup>



[그림 22] 알라의 도 대표 모스크 내 방송 부스<sup>22)</sup>

#### ❖ 기독교 방송사와 미디어 콘텐츠

- 태국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합해 1.1%의 신도가 있음. 매우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자체 방송사 운영 및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음. CGNTV Thai는 한국의 개신교 방송 채널이지만, 미주, 대만, 일본 등 해외에 방송국을 개국한데 이어 2010년에는 태국 CGNTV 방콕 제작센터를 열면서 태국에서도 종교 미디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짐
- 가톨릭의 경우 TNN26에서 매주 일요일 가톨릭 관련 콘텐츠를 방영하며, <http://www.catholic.or.th/> 라는 태국 가톨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미디어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음

21) 그림 출처: 저자 직접 촬영

22) 그림 출처: 저자 직접 촬영

4

정리 및 시사점



- ❖ 태국 정부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브라마교, 시크교라는 5 개의 종교를 공인하고 있으나, 불교도가 93.5%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슬람교 5.4%, 기독교(가톨릭 및 개신교) 1.1%로 불교 외 종교의 신도는 매우 소수임. 유일신을 믿는 이슬람교 및 기독교와 달리 불교도들은 불교 외 힌두교 신, 귀신, 민간신앙 등에 대한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음
- ❖ 이러한 배경에 따라 불교, 승려, 귀신, 민간신앙 등을 다룬 콘텐츠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산·소비됨. 귀신과 민간신앙에 대한 믿음을 다룬 영화는 해외에 수출되고,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되거나 한-태 합작으로 제작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귀신과 민간신앙에 대한 영화는 최근 공포 장르를 벗어나 코믹, 로맨스 등으로 재해석되어 소비되고 있음
- ❖ 이슬람교와 관련된 콘텐츠는 무슬림에 의해 생산·소비됨. 종교적 가르침과 불교도가 주를 이루는 주류 사회와의 조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타종교인과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것은 무슬림 콘텐츠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불교나 기타 종교 콘텐츠에서는 드러나지 않음
- ❖ 최근 무슬림 방송 채널에서 저예산 무슬림 영화를 제작·배포함. 영화 제작과정 전반에 이슬람교 교리를 따라 제작하는 이러한 영화를 ‘할랄 무비’로 칭하며, 이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음. 그러나 이슬람교 관련 미디어 콘텐츠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기 때문에 콘텐츠의 다양화나 시청자 풀 확장에 한계가 있음
- ❖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각각의 방송사를 통해 종교 관련 미디어 콘텐츠를 송출함. 각 방송사는 TV 채널 외 라디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각각은 종교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설교, 종교인으로서의 삶, 종교와 관련된 소식 등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 불교는 불교 방송사 채널 외 국가 공휴일 종교 행사를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곤 하는데, 특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미디어 시청으로 참여를 대신하는 사람이 늘어났음
- ❖ 이슬람교는 방송국 채널 외 각 도 대표 모스크나 지역 일반 모스크 내 방송 부스를 만들어 라디오,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송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음
- ❖ 기독교는 개별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국의 CGNTV가 방콕 제작센터를 개국하거나, 태국 가톨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송출하는 등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계임

태국 콘텐츠 특화보고서

2022년 01호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박웅진 (태국 마케터)

집필자 옹지인 (부산외대 태국어과 교수)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2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http://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http://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